



Market Index / 7일

코스피지수 ▲ 2334.27 +42.26	코스닥지수 ▲ 757.97 +13.34	유가(WTI, 달러) ▼ 98.53 -0.97	환율(원)	1USD 1322.75 100¥ 973.07	살때 1277.25 팔때 939.61	1EUR 1353.31 1CNY 203.61	살때 1300.51 팔때 184.23
---------------------------	--------------------------	------------------------------	-------	-----------------------------	-------------------------	-----------------------------	-------------------------

경매 나온 물건 10건 중 4건 팔렸다

올 상반기 경매 1224건으로 1년 전보다 19.4% 감소
낙찰률 42.3%로 6.2%p ↑... 평균 응찰자는 1.3명 ↑

올 상반기 제주도내 경매시장에 나온 부동산 10건 중 4건이 주인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매물건은 1년 전보다 10% 이상 감소하면서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상승하고, 평균 응찰자 수도 늘어났다.

7일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부동산 경매건수는 1224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519건) 대비 19.4% 감소했다. 경매를 통해 518건이 매각되면서

낙찰률은 42.3%로, 지난해 동기 대비 6.2%포인트(p) 높았다. 평균 응찰자 수는 5.1명으로 1.3명 늘었다.

주거시설은 상반기 중 386건에 대한 경매가 진행돼 낙찰률 45.6%, 낙찰가율 81.6%를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5.7명이다. 지난해 상반기 경매건수(454건)보다 줄었지만 낙찰률(43.6%)과 낙찰가율(75.5%)에선 소폭 상승했다.

주거시설 중 아파트는 상반기 지난해(85건)보다 56.5% 감소한 37건의 경매가 진행돼 평균 98.3%의 낙

찰가율에 23건이 새 주인을 찾았다.

업무상업시설은 317건이 경매시장에 나와 133건이 새 주인을 찾으며 낙찰률 42.0%, 낙찰가율 66.4%를 나타냈다. 평균 응찰자 수는 6.7명이다. 지난해 상반기에 418건의 업무상업시설 경매가 진행돼 낙찰률 24.6%, 낙찰가율 50.0%. 평균응찰자 수가 3.1명이었던 것에 견주면 상대적으로 경매시장이 활기를 띠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업무상업시설에는 호텔·콘도 등의 숙박시설이 포함되는데, 지난해의 경우 숙박시설의 공급과잉 상태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로 경매에 나오는 물건이 많았던 반면 올해는 일상회

복에 따른 내국인관광객 증가로 경매 물건이 줄고 낙찰가율도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토지는 경매가 진행된 516건 중 40.1%(207건)이 낙찰됐고, 낙찰률은 73.4%로 집계됐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금리 상승기엔 이자 등 부담에 경매 물건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데, 상반기 제주지역의 경매 물건이 줄어든 것을 보면 현재까지는 금리인상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앞으로 금리가 추가 인상될 경우 경매시장에 대한 관망세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올 상반기 도내 관광지 중 성산일출봉이 가장 관광객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한리일보 DB

빅데이터 전문기업, 차량 도착·포털 검색량 분석 “관광객 최다 방문지는 성산일출봉”

올 상반기 제주도내 관광지 가운데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은 성산일출봉인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빅데이터 전문기업 TDI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티맵(TMAP) 사용자의 차량 도착 수를 집계해 제주 관광지 중 방문객이 가장 많은 곳을 분석한 결과 성산일출봉이 19만5437건으로 가장 많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협재해수욕장 14만323건, 함덕해수욕장 11만3462건, 섭지코지 11만1718건, 아르떼뮤지엄 10만8822건, 이호테우해변 10만3542건,

비자림 9만6455건, 오설록티뮤지엄 9만648건, 사려니숲 8만9961건, 주상절리대 8만8346건 등 순이다.

같은 기간 제주 관광지에 대한 포털 검색량도 분석한 결과 성산일출봉이 59만80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르떼뮤지엄 43만5977건, 함덕해수욕장 37만4697건, 협재해수욕장 33만8302건, 오설록티뮤지엄 26만137건, 비자림 24만5171건, 이호테우해변 24만3531건, 섭지코지 21만7219건, 사려니숲 2만7148건, 주상절리대 1만1959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창고도 실거래가 공개 국토교통부, 8일부터

국토교통부는 2006년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도입 이후 신고된 공장, 창고 등 비주거시설 6종의 실거래가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앱을 통해 8일부터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상세 지번정보를 제외한 공개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계약일 등이 실거래가와 함께 공개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06년 아파트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2012년(단독, 연립·다세대·다가구), 2015년(오피스텔, 토지,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상업·업무용(2016년)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왔다.

이번에 공개하는 공장, 창고, 운수시설, 위험물저장·처리시설 등 6개 시설은 전체 건축물 거래의 0.5% 수준이지만 충분히 데이터가 축적돼 왔다.

특히 최근 프롭테크(기술 결합 부동산 산업) 업계 등의 비주거시설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실거래가 추가 공개 요구에 맞춰 준비해 왔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문미숙기자



농협하나로마트, '물기금등 100대 품목' 30% 할인. 농협중앙회가 연말까지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물기금등 100대 품목'을 선정해 추석 때까지 평균 30% 할인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농협하나로마트 할인행사 모습. 연합뉴스

청년 신규채용 기업에 월 20만원 추가 지원

제주자치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종전 지원액에 월 20만원을 1년간 추가 지원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청년 취업지원 희망 프로젝트사업에 참여하는 1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이다.

다만 15세 이상·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 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은 참여한 청년 취업자가 안정적

인 양질의 일자리에 정착할 수 있도록 1명당 월 50만~70만원의 인건비를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기업의 규모에 따라 최대 10명까지 지원하고, 제주도가 인증한 고용 우수기업은 3명을 추가해 최대 1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올해 추가 지원을 포함해 총 28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620명(계속 지원인력 320명 포함)의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다혜기자

“제주 지역특화산업 육성 우선해야”

제주상의, 민선8기에 바라는 기업의견 조사

제주지역 기업들은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꼽았다. 또 기업의 절반 이상은 민선 8기 출범에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지난달 도내 9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에 바라는 기업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35.4%가 꼽았다고 7일 밝혔다.

이어 ‘입지·시설·환경 관련 규제 해소’(20.7%), ‘용지·도로·항만 등 인프라 확충’(16.5%), ‘외자·기

업 투자 유치’(13.4%), ‘지역대학 지원 등 인력 양성’(12.2%) 순으로 응답했다.

또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경제해야 할 사항으로는 34.4%가 ‘현장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을 꼽았다. 이어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20.1%), ‘선심성 예산 집행’(19.6%), ‘지역경제 주체의 여론수렴 미흡’(17.9%), ‘중앙정부·지방의회와의 갈등’(7.1%) 순으로 꼽았다.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54.4%가 ‘기대한다’, 45.6%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문미숙기자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요목

장마때 분양

유라조생	2년생
천혜향	2년생
감평	2년생
황금향	5년생

천혜향 3.4년생, 황금향 3.4년생
한라봉 3.4년생, 남잔해 3.4년생
부리는 5년생 양묘계약 합니다.
※ 분양은 2022년 10월 30일
매월을 상귀리 716번지 870평

한림종묘사

010-3690-2453, 010-8820-5769

감귤 신품종 분양

2023년 봄출하예정 요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 천혜향(특호), 황금향, 윈터프린스, 한라봉, 사라향(천혜향신품종), 탐나는봉, 카라향, 탐빛1호, 병유자, 아마나스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오하라배니(궁천변이)
[유라,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2년 본당 1만원 특별분양 선착순]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귀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요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본도로변)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
(관리자 : 010-9480-1564)

감귤요목 분양

※ 만감류

- 윈터프린스 1년생
- 카라향 1년생 ● 황금향 1년생
- 천혜향 1년생 ● 레드향 1~2년생
- 한라봉 1년생 ● 탐나는봉 2년생
- 미니향 2년생 ● 레몬3년생,
- 제라온2년생 ● 미니몬1년생
- 하굴(아마나스)1~4년생

※ 극조생 & 조생

- 궁천조생1~3년생 ● 유라조생1~2년생
- 하례조생 1년생 ● 히노아까리 3년생
- 오하라배니와세(궁천변이) 1년생

※ 포트요목

- 유라조생, 윈터프린스, 레드향, 한라봉 외

※ 탱자요목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식물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요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 강정동465-1, 1013-1, 2327-1 하예동1831-2번지 외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 / 010-8948-1082

감귤요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에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열티 등 일본권정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유라실생 하우스골 많은 견학바랍니다.

유라조생 1, 2년생	하굴 4, 8년생
천혜향 1, 4년생	궁천 3, 5, 8년생
레드향(무목) 1, 4년생	궁천 변이(오하라배니) 2, 3년생
하례조생 3년생	레몬 3년생
고림조생 5년생	황금향 1, 4년생
한라봉 1, 2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3-20-08

010-2699-2355